

방콕

체험 추천

1. 방콕에서 떠나는 고래 투어

방콕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뭇사콘 (Samut Sakhon) 지역에서 배를 타고 고래를 찾는 투어를 진행합니다. 고래의 종류는 수염고래이며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타이만에 서식하는 고래의 설명, 특징 이동경로 등을 보며 고래를 찾는 투어를 진행합니다.

1. 바다에서 사는 해양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보기 위해 탐험하는 성격의 투어로 이색 체험으로 참여해주세요. 고래를 보지 못하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 오전 7시에 아침식사로 태국식 죽(끓인밥), 점심식사로 태국식 뷔페를 제공합니다. 인근에는 매점이 없으니 출발 전 다른 식사를 희망하시면 개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투어 시작 전 멀미약을 나눠드리고 있지만 장시간 배를 타기 때문에 여분의 약은 개별 준비해주세요

- 06:00 미팅 장소 집결 [BTS 아속역 5번 출구, ROBINSON 백화점 1층, 맥도날드 앞]
- 06:00~07:00 선착장 이동
- 07:00 아침식사 (죽 제공)
- 08:00~16:00 고래 투어진행
- 16:00~17:30 아속역 복귀

[몽키트래블 MD가 알려주는 고래 투어 꿀팁]

그래서! 다녀온 사람으로서 몽키트래블 고래 투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휴대폰/아이패드에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하기
2. 기내용 목 쿠션이 있다면 준비하기
3. 태국 음식을 잘 먹더라도 간단한 간식거리 준비하기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투어 특성상 멍~하니 바다만 보고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준비 하면 좋겠죠~?

[출처] [\[방콕/투어\] 방콕에서 수염고래를 볼 수 있다?! 방콕 근교 이색 여행지 추천](#) | 작성자 [몽키트래블](#)

2. 방콕 디너 크루즈: 방콕의 로맨틱한 밤, 디너크루즈 어때요?

태국 방콕의 아름다운 야경을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볼 수 있는 디너크루즈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

론 아름다운 에메랄드 사원과 왓아룬의 야경을 짜오프라야 강에서 볼 수 있어 꼭 해봐야 할 액티비티 중 하나예요. 내부에서는 잔잔한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로맨틱 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아요. 방콕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선상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고급 디너 그리고 환상적인 야경을 즐겨보세요. 유명한 크루즈 중 하나인 짜오프라야 프린세스 디너 크루즈는 방콕에서 가장 큰 크루즈 중 하나로 무한도전 멤버들이 탑승해 더욱 인기를 끌었어요. 크루즈를 타고 방콕의 랜드마크를 만나보세요. 특히 강 위에서 보는 왓아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방콕의 밤을 보내고 싶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아이콘 시암 또는 아시아 티크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저녁 18시 30분부터 체크인을 진행해요. 모든 승객이 승선을 완료하면 저녁 19시 30분부터 운행이 시작된답니다. 크루즈를 타고 오직 방콕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샹그릴라 호텔, 밀레니엄 힐튼 호텔, 리버 시티 피어, 메모리얼 브릿지, 왓 포, 왓 아룬, 방콕 왕궁 그리고 라마빌 브릿지까지 이동 후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경험해 보세요! 처음에 실내에 자리를 잡고 시원한 곳에서 식사를 즐기고, 이후 야외 선상에서 낭만적인 방콕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방콕은 언제나 덥기 때문에 에디터는 실내 좌석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흡연자라면? 담배를 필 수 있는 야외석을 추천해요. 야외는 별도의 흡연석이 있거든요.

주소 :

ICONSIAM (아이콘시암)

299 Charoen Nakhon Rd, Khlong Ton Sai, Khlong San, Bangkok 10600 태국 [Google Map에서 열기](#)

* 아이콘시암 백화점 G층 "SOOKSIAM ZONE" 나라야 매장 뒷편 차오프라야 프린세스 디너크루즈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해 주세요. [이미지보기](#)

Asiatique (아시아티크)

아시아티크 웨어하우스 7-8번 창구 티켓 부스 (캔디샵 옆)

2194 ถนนเพชรบุรี แขวงวัดพระยาไกร เขตบางกอกแหลม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10120 ไทย [이미지보기](#) [Google Map에서 열기](#)

아시아티크 탑승 시:

* 패리 이용: BTS 사판타신 역에서 하차 후 아시아티크로 가는 무료 셔틀 보트 탑승 (10~15분마다 운행)

* 택시 이용: 기사님께 "빠이 애시아틱"이라고 말씀하시거나 "ເວົ້າຫີ່ຕ ເດວະ ວິວອົວົວອົນທໍ" 이 문구를 보여주세요. (1시간 30정도 소요)

체크인/출항 시간 :

- 아이콘 시암 체크인 시간 18:00 - 19:00 또는 18:00 - 19:45 / - 디너 출항 및 복귀 19:30 ~ 21:30 / 20:00 ~ 22:00
- 아시아티크 - 체크인 시간 18:00 - 19:00 / 디너 출항 및 복귀 19:30 ~ 21:30
- 선셋 크루즈(아시아티크 출발) - 오후 16:00 - 16:30 / 선셋 출항 및 복귀 17:00 ~ 18:30

선셋 크루즈 이용 시 (아시아티크 출발):

- 오후 16:00 - 16:30 아시아티크 티켓 부스에서 티켓 교환

- 오후 17:00 아시아티크 선착장 1번(Pier 1)에서 탑승
- 오후 17:15 선셋 뷔페 시작과 강변 유람(맥주 무제한)
- 오후 18:30 선착장으로 귀환

교통 체증이 심한곳으로 사판탁신역 아이컨시암 페리를 이용한 이동을 권장해드립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배 탑승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해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하며 곳은 1시간 30분전 출발을 권장합니다. 미리 넉넉한 시간에 도착하셔서, 백화점구경 및 선착장에서 기념사진 촬영하시다가 탑승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좌석 지정은 불가합니다. 4세 미만 무료 및 유아 좌석 배치 완료. 예약시 실내, 실외석 중 따로 구매해주세요. 만 4세 - 10세까지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방콕 디너크루즈를 예약할 때, 좌석은 야외좌석을 추천드려요. 내부 좌석은 에어컨좌석이라 시원 할 순 있지만, 여행지의 분위기를 느끼기엔 창문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밤엔 생각보다 선선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약 시 실내석과 야외석을 고르기만 하면 구체적인 좌석번호는 티켓에 정해져 나오니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동할 때는 그랩, 볼트 등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하철에서 바로 갈아탈 수 도 있다. 아시아티크에서 탈 예정이라면 BTS 사판탁신역으로 이동해 2번출구로 나와 수상버스 사톤역에서 아시아티크 무료 셔틀 배편을 타고 10분에서 15분정도 이동하면 아시아티크에 도착한다. 이후 티켓을 발권하고 배에 탑승하면 된다.

3. 나콘 파툼 숨은 명소 탐방

방콕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나콘 파툼의 숨은 명소들을 탐방하는 이색적인 단독 일일 투어를 소개할게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 편안하게 출발하여 첫 번째 목적지인 랑마음 수상시장에 도착해요. 수상보트를 타고 전통적인 시장의 활기를 느끼며 현지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이어 방문하는 왓 삼 프란 드래곤 사원은 독특한 건축 양식과 거대한 드래곤이 휘감은 탑으로 유명해요. 이후 동물원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방콕 근교의 숨겨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신비로운 드래곤과 함께하는 왓 삼 프란 드래곤 사원 탐방 : 왓 삼 프란 드래곤 사원은 태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명소 중 하나에요. 거대한 드래곤이 휘감고 있는 독특한 건축물로, 멀리 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매력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드래곤이 감싸고 있는 17층짜리 핑크색 탑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에서 튀어나온 듯한 인상을 주며,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탑을 감싼 드래곤의 몸통은 실제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어, 사원内外부를 탐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탑 꼭대기에 올라 주변의 탁 트인 경관을 눈에 담으며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현지인의 일상이 담긴 랑마음 수상시장 : 여행객들로 붐비는 다른 시장들과 달리, 태국 현지인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랑마음 수상시장이에요. 수상보트를 타고 수로를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상점과 식당을 둘러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주말에는 다양한 로컬 제품과 길거리 음식들이 시장을 가득 채워, 방콕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요. 바쁜 도시 속 잠시 여

유를 찾고, 수상시장에서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며 이 지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이 아닌, 태국 현지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한 투어에요. 방문하게 될 다양한 장소들은 일상적으로 여행객 보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 때문에 태국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쁜 도시를 벗어나, 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태국을 색다르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 쇼 타임

악어 레슬링 쇼: 오후 12시 45분 - 오후 1시 5분
매직 쇼: 오후 1시 15분 - 오후 1시 45분
코끼리 쇼: 오후 1시 45분 - 오후 2시 10분

- 준비물: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현금

4. 반딧불 보트 투어

방콕의 도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체험, 바로 반딧불이 보트 투어에요. 방콕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반딧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 투어는 소중한 사람들과 로맨틱한 밤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밤이 되면 방콕의 강가에는 수많은 반딧불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해요. 보트에 올라 천천히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빛을 감상해 보세요. 반딧불의 은은한 빛은 마치 꿈속에 들어와있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친구, 가족, 연인 누구와 함께하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반딧불 투어와 함께 낭만을 느껴보세요! 밤이 되면 수많은 반딧불이 마치 작은 별처럼 어둠 속에서 반짝여요. 이런 반딧불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요. 숲 속 또는 강가에서 진행되는 이 투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해요.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반딧불의 생태와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반딧불이 빛을 내는 원리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면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딧불 투어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요. 자연과 교감하며 반딧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방콕 시내 중심에서 약 20 분 이동하면 반딧불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본격적인 반딧불이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곳에 있는 강변 레스토랑에서 멋진 석양을 감상하며 현지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요. 강변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먹는 저녁 식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저녁 식사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점점 물들어가는 노을과 붉은색으로 물드는 강과 도시들이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해요. 황금빛으로 변하는 하늘과 물이 하나가 되어 펼쳐지는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짜오프라야 강에서 황홀한 노을과, 신비로운 반딧불이를 만나보세요!

방콕은 교통 체증이 심해 지상철(BTS)나 지하철(MRT)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려요.

오후 5 시에 MRT 퀸시리낏(Queen Sirikit)역 4 번 출구에서 미팅(주소: Ratchadaphisek Rd, Khlong Toei, Bangkok 10110 태국). 미팅장소에서 가이드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보트를 타러 이동한다. 약 15 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한 후 도보로 3 분정도 선착장으로 이동한다.

강변의 로컬 레스토랑에서 하선하여 뜰양꿍과 씽遗留를 비롯하여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해산물요리와 통오징어 요리, 생선찜, 코코넛음료 등 다양한 로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투어는 식사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요, 주말에 한해서 18:30 부터는 라이브 공연도 있어요. 식사를 하며 일몰을 감상한 후, 해가 질 무렵부터는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어 라이브를 들으며 태국식 디저트나 커피, 맥주도 한 잔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라이브 감상 후에 날이 어두워지면 반딧불을 만나러 갈 시간이다. 반딧불 구경까지 모두 끝나면 보트를 타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간 후 다시 미팅했던 장소인 퀸시리킷으로 돌아간다. 늦은 시간 약 3 시간 정도만 진행되는 투어인 만큼 낮 시간에 여행 후 저녁에 빈 시간에 다녀오기 좋은 투어

[출처] [태국 이색 투어, 방콕 도심 반딧불 보트 투어](#)|작성자 [몽키트래블](#)

5. 룸피니 공원 요가 클래스 힐링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룸피니 파크에서 열리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룸피니 파크는 울창한 나무와 푸르른 잔디로 둘러싸인 도심 속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런 자연환경에서 요가를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즐기는 요가는 실내에서 하는 요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줘요. 룸피니 파크에서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룸피니 파크 요가 클래스는 다양한 요가 경험을 가진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수업이 진행돼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자세 교정부터 호흡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요가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요가의 기초부터 고급 동작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업 시작 전 요가 자세를 익히며 올바른 자세 교정과 근육 강화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요가 자세를 익히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요가 동작을 연습해요.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명상과 이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요. 룸피니 공원은 울창한 나무와 푸르른 잔디로 둘러싸인 방콕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공원이에요. 여행 중 요가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지 요가 클래스는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현지인들과 함께 요ガ를 하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요가 클래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위치: MRT 실롬역 1 번 출구 King Rama VI Monument 뒤 메인 게이트에 있는 노란색 CITY SHOP

클래스는 보통 90 분정도 소요되며,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거나 와그와 같은 여행 사이트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 룸피니공원 가는법은 여러가지인데 쉐라톤 그랜드 스쿰빗이 아속역과 연결되어 있어 BTS를 타고 중간에 환승해서 Sala Daeng 역에서 내렸다. Sala Daeng 역에서 룸피니 공원까지는 걸어서 10 분이 좀 안 걸렸던 것 같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룸피니공원! 룸피니공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MRT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요가매트는 제공되고 요가가방과 물, 그리고 바나나와 같은 간식을 선물로 제공해준다. ([출처] 방콕 룸피니공원 요가클래스|작성자 일상의 숲)
- 룸피니공원 굉장히 큅니다. 요가 클래스 시간, 장소 확인 후 미리 출발하시길 추천..., 룸

피니공원이 크고 예쁘니 운동 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 태국 물가치고는 원데이클래스 물가는 센 편. 하지만, 만족할만한 원데이클래스입니다. 꽉 찬 90분 클래스에 수준맞 춤 수업, 자세도 다니면서 봐주시고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주신다. 기본 제공되는 물, 바나나, 에코백까지 만족. 하지만 굉장히 덥고 습하니 요가클래스를 위해 머리끈, 손수건 필수! 7시 과정 추천! 90분짜리라 끝나면 8시반, 씻고 준비해서 그날 일정 고려하면 하루를 이르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 ([출처] [태국 방콕 여행 룸피니공원 아침 요가 원데이클래스 사티옴요](#)
[개작성자 [비비라](#)])

6. 방콕 왕궁 투어

저희는 그랩을 이용하여 방콕 왕궁으로 이동했답니다. 다른 대중 교통을 이용한 수단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4인 가족이라 그랩으로 이동하는게 가성비 더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시원하게 왕궁까지 올 수 있었어요. 왕궁이라 복장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얇은 긴 바지를 한국에서 미리 사서 가져와서 입혔어요. 초등학생 아이 옷차림 : 얇은 긴바지 + 반팔 남편 옷차림 : 얇은 긴바지 + 반팔 + 셔츠 제 옷차림 : 민소매 원피스 + 시스루 가디건 시스루 가디건이라서 걸릴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걸리면 남편 셔츠를 입을 생각이었음) 다행히도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포스팅에서는 슬리퍼는 안된다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그냥 슬리퍼 신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슬리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요. 왕궁 구경하는데 무척 덥다고 하여 저희는 오픈런을 했어요. 8시 30분 오픈인데 8시 조금 넘은 시각에 도착했답니다. 그래도 문 앞에 먼저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8시 30분쯤되면 직원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안으로 쭉 들어가서 매표소에서 매표하시면 되요. 왕궁은 태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입장료가 센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볼거리가 많고 화려한 왕궁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티켓 확인하는 입구에 키를 챌 수 있는 것 처럼 생긴 무언가가.. 붙어있어요. 약간 애매한 키는 그냥 들여보내주는 듯 했어요.

왕궁이 은근히 넓어서 들어가실 때 지도 꼭 들고가세요. 저희는 아이들이 지도 보면서 나왔어요. (너무 더워서 탈출하겠다고ㅋㅋㅋㅋ)그래도 오전에 가니 만히 덥진 않았고 왓 프라깨우 에메랄드 불상 있는 곳은 대형 선풍기가 여러대 있어서 시원했어요. 그리고 일찍 가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진이에요. 저희가 오픈런 해서 들어갈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진 찍기가 수월했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단체 관광객이 온 것인지 왕궁 전체가 바글바글해졌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면 어떤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해요. 너무 더우면 화장실 가세요.. 충분히 돌아본 후 나오려고 하는데 근위병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뭐지하고 봤더니 교대식 같은걸 하는거에요 그런데 그냥 교대를 하는게 아니라 어떤 의식에 따라 하시는데.. 오 각 잡힌 것이 정말 멋졌답니다. 생각지도 못한걸 구경해서 더 좋았어요.

7. 아이와 함께 '씨라이프 오션월드 방콕'

방콕 씨라이프 오션월드는 방콕 BTS 지상철 시암(Siam) 역 바로 앞에 있는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 있어요. 시암 파라곤 쇼핑몰 입구에요. 시암 파라곤이 방콕에서 규모도 정말 크고 유명한 쇼핑몰인데 그래서 그런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주말에는 걷기도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쇼핑몰 1층 환전소 옆에 귀여운 펭귄이랑 씨라이프 오션월드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입장은 오후 7시까지 가능하네요. 내려가면 티켓 파는 곳이 있어요. 티켓 사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보여주고 입장하면 돼요. 역시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이 많아요. 티켓은 몽키트래블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 성인 38,888원, 아동 31,228원에 구입했어요. 오션월드와 마담투소 입장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네이버 여행에도 입장권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판매중지라고 나오더라고요. 몽키트래블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서 편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부분이 진행 과정이 빨랐어요.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지 상황이나 아이 컨디션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방콕에 도착해서 오션월드 가고 싶은 날 새벽에 예약했는데 아침에 바로 결제 안내 문자 오고 결제하니 30분 정도 후에 확정 문자가 왔어요. 진행을 빨리해줘서 원하는 날 갈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기념사진 찍는 곳이 있고 바로 수족관이 나와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려가지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물이 아주 깨끗하고 물 비린내도 전혀 안 나요. 중간쯤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팝콘, 아이들 음료수도 있어서 중간에 쉬어가기 좋아요. 그런데 오면 아이들은 신나서 방방 뛰는데 어른들은 많이 피곤해지잖아요. 커피 한 잔이 절실해질 때 카페가 나와요. 카페에서 나와서 내려가면 이제 큰 수족관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중간에 불가사리 만져보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수족관에 이런 동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 웅장하고 신비롭고 멋져요. 수족관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려서 이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도 많아요. 앞에 좌석이 있어서 앉아서 오랫동안 물고기 보기도 좋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힐링 되더라고요. 시간만 많았으면 더 있고 싶었어요. 옆에는 펭귄 수족관도 있는데 마침 펭귄 한 마리가 해엄을 치고 있었어요. 관람하던 아이들이 앞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더라고요. 상어 터널을 지나서 좀 더 가면 겨울 왕국처럼 꾸며놓은 곳이 나와요. 안에는 인공눈이 날리는데 자세히 보니 거품이더라고요. 눈이 날리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겨울 왕국을 지나서 기념사진 찍는 곳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면 기념품샵이 나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가격이 꽤 비싸요. 작은 인형 하나에 3만 원 정도 했어요. 오랜만에 물고기도 보고 상어도 보니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좋아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이랑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연인끼리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태국 방콕에서 아이와 가기 좋은 곳으로 씨라이프 오션월드 방콕 추천해요.

유명한 식당

1. <디아우매끌롱> 바지락볶음

Stir fried clams with chili paste(450บาท)

랭抑郁으러 갔다가 사이드로 시켰는데 랭抑郁보다 더 맛있게 먹음. 바지락 살도 튼실하고 국물양념이 미쳤다 (짭쪼름&밥 비벼야 하는 맛 참고로 가게 서비스는 별로 사람이 너무 많고 물티슈 주는 직원, 그릇 주는 직원, 따로 있어서 자기 역할 아니면 잘 안 해줌 하지만 맛있으니까 가야 함 (랭抑郁+바지락볶음+밥종류 추천)

▶ 위치: 쯔페어야시장 안 (Diaw Maeklong Restaurant)

2. <씀분씨푸드> 뿌빳퐁커리

뿌빳퐁커리 (700바트) 방콕에서 먹은 뿌빳퐁커리 중에 제일 맛있었다(달달한 맛) 현지인은 거의 없고 한국인, 중국인이 대부분이었음 미슐랭 맛집이고 가격은 좀 있는 편

▶ 위치: 킹파워 마하나컨 근처 (Somboon Seafood)

3. <쁘라작 뱃양> 오리국수

550번 오리국수 egg noodle with roasted duck(60바트) 밥~~~~~면이 더 맛있었는데 면이 컵라면의 면처럼 얇아서 소스가 잘 배운 간이 너무 세지 않고 딱 맞았음 먹고 나서는 맛있네 정도였는데 흔하지 않은 맛이라 그런지 한국 와서도 가끔 생각남 현지 식당 느낌이지만 나름 깔끔한 편이고

가격이 저렴하다 작은 사이즈는 양이 살짝 부족할 수 있음

4. <해브어지드> 비프갈릭볶음멸

Stir-Fried Instant Noodle with Picanha Beef & Garlic (195바트) 살짝 짠데 소고기볶음라면?+짭짤 고기는 부드럽고

흔하지 않은 맛있는 맛이라 추천

위치: 터미널21 (Have a Zeed)

5. <나이쏘이> 갈비국수

A1 갈비국수 Stewed Beef Soup (100바트)

단점은 음식도 뜨거운데 가게가 덥다ㅠ 땀에 절어서 찝찝, 배도 안고픈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었다면 = 맛집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다 고기가 야들야들 부드럽고 국물이 진함 A1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음 A2 고기는 씹는 맛이 있지만 다음에 또 가면 인원수 대로 A1 시킬 듯

▶ 위치: 카오산로드

[출처] [태국] 방콕 맛집 정리(2024 ver.)|작성자 뽕뽕

6. <반씀땀> 씀땀

내부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대부분 태국인이었어요. 외국인도 있었는데 관광객보다는 방콕에서 사는 현지인 느낌이었는데 한국인은 저희 가족만 있었어요. 씀땀이 메인인 방콕 맛집인데요. 씀땀은 액젓 같은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첫 시도라면 기본 메뉴인 씀땀 타이보다는 옥수수 씀땀을 추천해요. 시큼하면서 특유의 향이 특 쏘는데 튀김 음식이랑 먹으면 궁합이 좋아요. 옥수수의 달달함과 소스의 새콤함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매콤함이 같이 느껴져요. -태국은 쌀국수가 향신료 향이 강한 편이라 아이랑 여행하면 볶음밥 주문을 필수. 새우, 게살, 돼지고

기 등 지난 여행에서 볶음밥은 지겹도록 먹고 온 것 같아요. 사진에는 없지만, 찰밥도 같이 주문했어요. 그랩 배달로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는 듯싶어요. 결제는 QR결제인 GLN으로 했고 1391바트(54365원)으로 4인 가족이 배불리 먹고 바트 나왔습니다.

6. <롱씨포차나> 태국식 차이니스 푸드

작년 방콕 여행에서 다녀왔던 롱씨포차나를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예약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했더니 20, 30분 대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약은 라인으로 가능한데 급하게 예약하려 하니 불가, 어딜 가든 대기가 있으면 잘 안 기다리는 편인데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웨이팅해서 먹고 왔습니다. 롱씨포차나는 중국식이 가미된 태국 음식을 파는 곳인데 신돈 캠퍼스키, 킴튼 말라이에서 이어지는 랭수언로드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배고픔에 여러 개 음식을 주문했고 그 중 가장 먼저 나온 모닝글로리 볶음. 아이와의 방콕 여행에서 식사가 어렵지 않았던 건 바로 항정살 구이 덕분이었는데, 밥이랑 항정살 구이만 있어도 한 끼 뚝딱. 태국 음식 중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해요. 이렇게 먹고 총 3332바트가 나왔어요. 저녁시간에 방문하신다면 가급적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7. <란 째오 쫄라> 미술랭 뜀양꿍

가장 먼저 찾아간 미술랭 맛집은 백종원 선생님 스푸파에도 나왔던 란째오쫄라! 오후 4시부터 영업시작이고 우리는 5시에 만나기로 했다. 식당에 도착했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한쪽엔 미술랭 인증서도 있었는데 6년 연속 미술랭 맛집이었다. 일단 대기줄로 가서 대기표를 받았다. 나는 106번을 받았고, 40분쯤 기다렸을 때 자리가 나왔다. 식당 한쪽에는 대기공간이 마련되어있었다. 차림표는 실제 사진이 포함되어있어 편했다. 그리고 음식 종류가 정말 많다. 음식명은 태국어와 영어로 적혀있었고, 가격대는 50바트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의 맛집이었다. 공심채도 야채는 부드럽고 양념은 짭조름하니 맛있었다. 따뜻해서 더 좋았어. 음식 나오는 텀은 조금 걸린다. 4인 총 식사 가격 970바트.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맛집

1. 소이 콘티 순(Soi Convent Soon)

주소: 14/2-3 Convent Rd, Si Lom, Khet Bang Rak, Bangkok 10500 태국, 1인당 ₩200~300

이 조용한 거리에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여러 곳의 맛집이 있습니다. 떡이 페드(태국식 태운 국수)부터 떡이 라트 나(태국식 쌀 국수)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2. 차렝 사 디 꼬(Chareng Sa Dii Khao)

주소: 360 ประเวศ 20 ตรอกไกรสีห์ Bangkok, Phra Nakhon, Samut Prakan 10200 태국, ₩1~100

이 작은 가게는 현지인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카오 니아, 마 문(태국식 망고 찹쌀)을 판매합니다. 달콤한 망고와 짭짤한 찹쌀의 완벽한 조화를 즐기세요.

3. 팁사마이 (Thip Samai)

진짜 인생 팟타이 만난 날! 팟타이 외에도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 역시 웨이팅이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차림표와 주문서를 먼저 주셨다. 팁싸마이는 운 좋게 30분정도 기다렸다. 직원분들이 초초초초 친절하시고 내부도 깔끔했다. 우리는 새우 팟타이로 주문했고, 라임/숙주/바나나꽃 등은 따로 나온다. 면도 쫄깃하고 부드럽고 최고야. 우리 진짜 배불렀는데도 맛있게 다 먹음! 총 가격 400바트.

4. 가파오타페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팟카오무쌉 제대로하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구글평점이 4.3이길래 다음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는 날이었어요 ㅎㅎㅎ 영업시간은 09:30-20:00로 아침식사나 아점 먹으러 가기 딱 좋았어요!! 화장실은 맛은편건물 2층에 있는곳을 이용해야된다고하네요 현지인맛집이었지만 메뉴판에는 다행히도 영어로도 적혀있었어요!하지만 저희는 사진만 보고 선택했어요 ㅎㅎ왼쪽 메뉴판에 Minced Pork OG가 오리지날이라 되어있어서 이거하나 주문을하고 오른쪽 메뉴판에 같은메뉴인데 스크램블에그가 올라간 Minced Pork OG With Super Powder Scramble Egg를 주문했어요 chrysanthemum tea도 후기에서 맛있다고 본거같아서 같이 주문했어요 소고기 메뉴로 주문할까 하다가 팟카오무쌉 자체가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메뉴라 정통적인 음식을 먹어보자 싶어서 돼지고기메뉴로 주문을했어요 ㅎㅎ 그냥 먹으면 좀 매운데 계란을 올려먹으면 맛이 중화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에서도 누린내도 안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ㅎㅎ 중간중간 작은 태국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씹히는데 태국고추 맵기로 유명하잖아요.. 하나씹고 너무 매워서 나중에는 고추를 다 빼놓고 먹었어요!! 마늘도 우리나라 마늘보다 훨씬 작은 마늘같은데 이게 자칫 느끼할수있는 고기덮밥의 기름진맛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ㅎ 남편도 저도 고추는 빼고 먹어서 더욱 맛있게 먹을수있었네요 ㅎㅎ 가격은 카파오무쌉 2그릇이랑 국화차까지해서 332바트로 한화로 대략 13,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 확실히 현지인맛집을가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있었어요! 아속역근처에서 제대로된 태국의 카오팟무쌉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파오타페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 고려 사항 (정보)

1. 팁과 관련한 문제

우리는 팁을 주고받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관광지에서는 팁을 주고받는 문화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매너팁을 조금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지만, 투어나 관광이 만족스러울 경우 한 그룹 당 100~200바트 정도를 매너팁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태국 자체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주인 나라이다 보니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일반 식당이나 택시 등에선 팁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혹 저렴한 식당인데도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면 한국에서도 팁을 주듯이 주시면 되고 굳이 안 주

셔도 됩니다. 택시의 경우 현금 지불할 때 잔돈 나오는 건 팁으로 줍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은 렌터카 기사님에게도 현금 팁 따로 드려야 해요. 이건 예약페이지에 보통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 없으면 100바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Tip. 호텔의 경우 20~50바트, 마사지의 경우 50바트 정도 지불하면 적당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마사지의 경우 길거리 마사지샵 20~50바트, 일반 타이 마사지샵은 50~100바트, 고급 아로마 마사지샵의 경우 100바트 이상 정도가 가장 무난한 기준인 듯

2. 여행짐과 관련한 문제

호텔 체크아웃을 했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데요? 최근에는 항상 투어 참여 인원이 많아 투어 참여 시 캐리어를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당일 인원이 많은데 가방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는 "스마일럭 캐리어 공항 배달서비스[방콕시내 → 수완나품공항만가능]" 상품을 이용해주셔도 되죠. ^^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태국에서는 현금보다 QR코드 결제를 활발히 사용합니다. 야시장, 대형마트, 편의점, 호텔, 쇼핑센터, 택시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환전 없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가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앱 로딩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결제 전 미리 앱을 켜두는 것이 좋아요. 현재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국내 앱은 토스, 하나은행 등이 있어요.

태국에서는 GLN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환전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0만 원만 환전했다.(3박 5일 기준) 환전은 태국 바트를 제일 잘 쳐준다는 우리은행 환전 주머니로 신청했다. 우리은행 어플로 신청하면 되고, 바트는 50% 우대해 줌. 수령 지점은 인천공항으로 했는데, 수령 가능한 곳이 많아서 편했다. 수령 가능한 위치는 계속 바뀌는거 같으니까 어플에서 조회하면 편하다.(블로그 후기랑 좀 달랐음) 트래블 월렛은 실물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그랩이랑 볼트 이용할 때만 쓰려고 모바일 카드만 발급 받았다.(실물 카드 발급받을 시간도 없었음 ㅠ) 듣기로 태국에서 실물 카드 카피가 은근 있다고 들어서 현금 조금 & 트래블 월렛으로 택시비 결제 & GLN 결제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 GLN은 토스, 하나은행, 보라색 GLN등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사용하던 토스로 했다. 엄청 느려서 불편하긴 함. 근데 이게 토스라 느린 건지 내 데이터가 느렸던 건지는 모르겠다. GLN 최곤게 BTS 결제도 가능하다. 버스는 현금만 됨.

하나은행 GLN은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써본 사람들은 모두 신세계라 부를만큼 간편하고 잔돈이 생기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 지하철을 탈 때에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원큐 앱을 깔고 GLN에 돈을 충전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는데, 충전하고 남은 돈은 수수료없이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하나은행 GLN 결제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QR코드 화면 띄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앱을 미리 켜놓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 (*간혹 사용중에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GLN결제가 안된다. 그 외에는 웬만한 곳은 다 결제가 가능했다.

4.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방콕의 트래픽 잼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에 나가려면 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방콕 지하철인 BTS, MRT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나와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S, MRT를 자주 이용하거나 방콕 명소를 꼼꼼하게 둘러볼 예정이라면 1일권이나 래빗카드 같은 교통패스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매번 표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BTS 지상철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많아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면 MRT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좋아요. MRT가 에스컬레이터가 더 잘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BTS는 래빗카드 100바트만 내고 따로 만들어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MRT는 트래블월렛카드를 만들어오면 여기에 충전한 걸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용한 금액은 다음 날 새벽에 빠져나가요. 차이나타운, 딸랏너아골목, 왓아룬 뷰포인트와 같은 관광지에 갈 때는 MRT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트래블월렛을 이용하여 MRT를 이용할 때는 실물카드를 미리 등록해놓는 것은 필수예요! BTS는 지상철이라 한 정거장 정도라면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아 걷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계단을 거치고 기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걷는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랩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랩을 이용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길가에 있는 택시를 잡아서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가는게 더 싸고 빠를 때도 있어요. 그랩 기사들이 길을 잘 못찾을 때도 있어요. 그랩만 사용하는 것보다 미터택시를 탔더니 절반가격밖에 안나왔어요. 전기 툭툭이 어플인 무브 미는 추천하지 않아요. 어플도 미완성된 느낌이라 사용하기에 어려웠고, 배차되는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때문에 미리 배차를 신청해놓으면 노쇼 비용도 있어서 놓칠 경우에 돈 낭비를 하게 돼요.

그랩이랑 볼트 전부 한국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 연결하고 갔는데, 그랩은 한국에서도 카드 등록한게 확인되고 볼트는 현지 도착해야 확인 가능하다. (볼트는 한국에서 에러났음) 그랩에서 카드 등록하면서 5바트 빼가는데 이걸 4일 만에 돌려줬다. 이걸로 걱정하는 사람들 많던데 4일 참으면 돌려줌 ㅠ방콕은 트래픽 잼이 심해서 택시 잡기 엄청 힘들다. 여행 계획 단계에서 진짜 하나도 안 걷고 택시만 타려고 숙소 위치를 별로인 곳에 잡았는데(리버사이드 ☺) 택시 잡는데 최소 한 시간 걸려서 짐 많으면 힘들었다. 그랩 잡을 때는 Just grab으로 부르는 게 좋다. Grab taxi는 비용이 유동적인데 Just grab은 정확히 432바트로 나왔다. 그리고 쿠폰을 많이 뿌려서 꼭 사용하시길 나는 엄청 늦게 알았다ㅎ금액 아래의 4-8 min은 그랩 기사가 내 위치까지 오는 예정 시간임. 근데 개뿔 저것보다 훨씬 늦게 온다. 그리고 그랩보다 볼트가 훨씬 저렴하다. 마지막 날 공항 가려고 그랩이랑 볼트 보는데 볼트가 150바트 저렴했다. 공항같이 멀리 가는 건 꽤 금액 차이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 목적지까지 저렇게 차이가 안 나서 그냥 대충 빨리 오는 거 잡는 게 마음이 편하다. 볼트는 쿠폰 거의 없다. 근데 그랩 쿠폰 쓰는 것보다 볼트 쿠폰 없는 게 더 저렴했다.

5. 기념품과 관련하여

- **빅씨마트: bts 칫롬역 4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시암 파라곤에서 차로 5분거리에 위치** 💜 택시를 타고 가면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줍니다. 주말은 무료 주차가 가능해

요!

빅씨마트 컨슈머 서비스로 가시면 캐리어 두시간 무료 짐보관 및 면세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매하실때 세금 포함해서 2000바트 이상은 꼭 채워서 쇼핑하세요면세 혜택 받을려면 여권필수! 방콕 대형마트인 빅씨마트는 두곳이 있는데한곳은 아이콘시암 내에 있고 한곳은 바로 여기! 랏차담리점이에요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쇼핑명소날씨가 너무 더웠어서 저에겐 살짝 힘들었던 여행이었는데 역시 실내 쇼핑이 쾌적하고 최고에요.

건망고: 말린 망고는 동남아 필수 기념품인데 방콕에서도 판매라고 있었어요

쥐포 벤토: 매운맛부터 기본 보통맛까지 맥주 안주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서애주가이 신분들은 꼭 쟁여오는 간식이에요! 특히나 매운맛은 스트레스 풀린다며감칠맛이 장난 아닙니다:)

차트라뮤 밀크티 파우더: 사이즈는 두가지였는데 파우더형 큰 사이즈는 200바트로 한국 돈으로 8200원입니다. 파우더형태로 되어있어서 조절해서 타먹으면 되고 티백형은 한번 타먹을 수 있는 양으로 여러개 들어있고 가격은 60바트 한국돈으로 가격은 2460원 저렴해요

녹타이 콩알치약: 종류는 4가지 녹색, 핑크색, 파란색, 흰색 천연치약으로 깔끔하고 매일 사용하기에는 강해서 치석 제거에 좋다고 하니 일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60바트 한화로 4000원이에용!

썬실크 헤어팩 트리트먼트 : 방콕 여행 필수템이자 국룰선실크 트리트먼트 헤어팩 제품 방콕 여행 기념품 쇼핑템 검색하면 이게 항상 뜨더라구요! 아직 사용은 안해봤는데 오렌지색이 필수라며가격은 99바트 한국돈 4천원대라 착해서 2개 구입했어요

웨하스 코코넛맛: 추천한다고 해서 사먹었는데요거 존맛 !! 가격도 한국돈 1200원밖에안 해요 ㅎㅎ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은꼭 사서 드셔보세요 계속 들어갑니다

호랑이 파스 & 호랑이 연고: 타이거 밤도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가장 많이 구매해가는 제품으로 샀어요! 마트 내 약품코너라서 마트와 따로 결제를 해야됩니다. 태국은 타이거 밤이 유명한데 부모님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호랑이 파스를 사서 드렸더니 안그래도 목이랑 어깨 팔이 뻐근했다며 엄마가 좋아하셨어요하지만 혼자 불이기엔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서 다음에는 호랑이 연고를 사야겠어요 ㅎㅎ

야돔 포이시안 마크 2: 비염이 심한 분에게 추천하는 야돔스틱인데 코감기 걸렸을때 코를 뻣 뚫어주는 약으로 향은 여러개 있어요 여러개 세트로 구매해서 주변분들에게 나눠 드리기 좋은 선물이에요

소펠 모기기피제: 몸에 뿌리는 모기기피제인데 가격 75바트밖에안해서 동남아 여행 자주 가거나 한국에서 여름에 뿌리기 좋습니당 👍 추천

코끼리 바지: 코끼리 바지는 흥정하면 100바트까지 내려서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빅씨마트에서 흥정하지말고,, 야시장이나 길거리에 110바트 이상 판매하는데 최대 100바트까지 내려봤어요 ^_^ 한국돈으로 약 4천원였는데 완전 괜찮은 가격대죠!

쿤나: 동생이 꼭 사오라며 쿤나 코코넛 과자코너를 가봤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빅씨마트 내에 쿤나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모든 과자 시식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하나씩 먹어봤는데 다 맛있더라구요 동생이 사오라 했던 쿤나 코코넛 과자가 리뉴얼 되어서 이 제품이라고 ^^.. 그래서 맛있길래 이걸로 통일해서 3세트 사왔어요

왕실 꿀 로얄 치트랄라다: 왕실 꿀 로얄 치트랄라다는 튜브형으로 가격도 착하고 저렴해서 주변 지인들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구매한다고 해요 44바트와 48바트인데 한국돈으로 1800-1900원대로 저렴합니다!

타오케노이 김과자: 김과자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했는데 맥주안주로 많이 사서 먹는다고 해서 여행객들이 쟁여가는 간식이에요 뜨양꿍맛도 있고 바삭하고 짭짤해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간식이었어요

6. 유용한 어플

- ICN smartpass: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어플로, 여권 등록하면 내 탑승권도 등록할 수 있다. 얼굴까지 등록하고 그냥 숙지나감. 백드랍도 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난 안 해봄
- 그랩: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랩 어플을 설치해서 그랩으로 택시를 잡아서 호텔까지 갔다. 그동안 방콕에 가면 번호표를 받아서 택시 타는 곳에 가서 택시를 탔었는데, 부르는게 값이라 늘 비싼걸 알면서도 생각없이 이용하곤 했었다. BUT 그랩 택시로 불러서 호텔까지 타보니, 택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랩푸드로 음식 배달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프렌차이즈가 더 저렴했다. 이후에 KFC 치킨도 그랩배달로 주문했었는데 KFC가 훨씬 싸고 맛있다. 그랩이랑 볼트 둘다 깔아봤는데 볼트는 택시비가 싸지만 그만큼 택시가 잘 안잡혀서 딱 한 번 제외하고는 타본 적이 없다. 그랩을 추천한다!

7. 준비해야 할 것들

- 유심(or 이심, or 로밍)

방콕이든 해외 어디든 나가는 순간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유심(이심, 로밍)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방콕 나갈 때는 기존에 KT로밍을 했었는데요. 로밍은 4기가 사용하는데 금액이 3만3천원이더라고요. 진짜 비쌈 ㅠㅠ 근데 5일 정도 여행하실 거면 4기가 용량도 사실 부족해요. 거의 와이파이 잡고, 인스타, 유튜브 거의 보지 않았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태국 유심을 쓰면 15기가를 주는데 6천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태국 현지에서 유심 신청하는 건 정신도 없고 엄두가 안 나서 그 동안 못했는데 한국에서 미리 유심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글구 이심(esim)도 좋아요. 15기가에 9천 원 정도인데요. 이심은 그냥 휴대폰에서 설정하는 거라 유심칩처럼 배송받거나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유심칩을 같아끼울 필요 없고 분실 위험도 없고 좋은데요. 다만 이심은 휴대폰 오래된 모델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갤럭시S23, Z플립, Z폴드 모델부터 가능하고, 아이폰은 아이폰11 이후 모델부터 가능합니다. 저도 이심 쓰고 싶은

데 갤럭시 노트20라서 아직은 유심을 쓰고 있어요 ㅠ

- 샤워 용품

태국이 의외로 수질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샤워필터가 쓰면 다른 동남아는 5일은 가던 데, 하루 이틀만에 검게 되는 ㅠㅠㅠㅎㅎ 방콕에서 샤워필터 없이 샤워하니까 얼굴에 뾰루지 여드름 나더라고요. 피부 지키고 싶은 분은 꼭 샤워필터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수건으로 쓸 스포츠용타월을 가져갑니다. 에어비앤비 등으로 숙소 예약하면 수건 제공이 매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건 재사용하려면 세탁기 돌리고 또 말려야 되고 해서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스포츠용 타올 준비하시면 사용 후에 적당히 손빨래하고 2시간, 3시간이면 말라서 편하더라고요

- 모기 용품

외출할 때 방콕 야시장 등 야외에서 밥먹거나 돌아다닐 때 물리지 않도록 꼭 한국의 '바르는 모기기피제'를 씁니다. 동남아에서는 SOFFELL이라는 아래처럼 생긴 뿌리는 모기기피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불량이라 뿌리다가 눈에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갔는데요. 엄청 따갑고 독해서 좀 위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 수영 용품

방콕까지 갔는데 수영을 안할 수 없지요? ㅎㅎ 방콕은 호텔이든 콘도든 수영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수영모는 다들챙기실텐데요. 가져가면 정말 유용한 게 크록스, 아쿠아슈즈 같은 샌들 제품입니다. 진짜 파타야 바닷가 혹은 호텔, 콘도 수영장이든 크록스, 아쿠아슈즈 있어야 함 ㅠㅠ